

전문가에게 듣는다

이강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선임연구원



“시험부터 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진행, 시간과 비용 단축”

이강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블루투스 인증심사관(BQE)이다. 이 연구원은 지난 2006년 블루투스 표준화와 인증을 위한 Bluetooth SIG(Special Interest Group)로부터 심사관으로 선임됐다.

‘BQE(Bluetooth Qualification Expert)’는 블루투스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블루투스 제품을 인증하는 전문가다. 전세계 BQE는 34명에 불과하다.

이 연구원의 인증 실적은 Bluetooth SIG에서도 상위에 랭크돼 있다. 지난 2007년에는 ‘블루투스 SIG’로부터 전세계 심사관(BQE) 중 전년 인증심사 실적이 뛰어난 사람에게 수여하는 ‘탑 리스팅 BQE APAC 어워드 2006’을 수상한 바 있다.

이 연구원은 TTA가 국제공인시험소로 인정받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시험 표준 및 인증 프로그램 제정 정보를 국내 보급, 국내 블루투스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품 상용화를 위한 최종 인증 및 리스팅이 BQE의 몫입니다. 블루투스 제품은 인증을 받아야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블루투스 테스트(카테고리 A/B) 결과와 제품 리스팅을 위한 각종 정보를 함께 리뷰하는 역할로서 BQE 리뷰를 통과한 제품만이 블루투스 SIG(Special Interest Group)가 운영하는 웹(qualweb.bluetooth.org, 리스팅된 제품을 모아놓은 사이트)에 리스팅(등재)됩니다. 리스팅까지가 BQE 역할입니다.

Q 이 연구원이 선임될 당시에는 BQE가 아니라 BQB라고 했었던데요?

자격 세분화에 따른 명칭 변경이 있었습니다. 과거 BQB가 BQE로 호칭이 변경됐고 이와 동시에 BQE A(Auditor)/S(Surveillance)/T(Trainer)로 분화된 것입니다. BQE A는 인터뷰를 통해, BQE T는 교육 시험을 거치는 등 일부 시험을 거쳐 자격을 획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Q BQE의 역할은?

BQE는 블루투스 제품이 표준에 적합하게 구현돼 있는지 심사,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심사관으로 블루투스 제품을 리스팅하기 위해 회사 정보와 시험 결과를 리뷰하는 사람입니다. 제

Q 우리나라 최초의 BQE라고 하던데요?

지난 2006년 3월 30일 BQE로 선임됐습니다. 한국인 국적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당시에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에 소속된 한국인이 BQE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소속으로는 처음이지만, 한국인으로는 두 번째라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현재는 TTA의 이정구 선임연구원이 BQE로 활동 중입니다.

Q 인증 실적이 Bluetooth SIG에서도 상위권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6년 3월 BQE 선임 이후 인증 실적이 50개에 불과했지만 2007년에는 120개로 늘어났습니다. 2008년에는 65개 인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007년에는 거의 이틀에 하나꼴로 인증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우리나라 최초의 BQE로서 감회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BQE 선임 이전과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BQE로 선임된 이후 블루투스 인증 프로세스가 과거에 비해 현격하게 빨라졌다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시험과 인증, 리

특
집

1
편

2
편

3
편

4
편

5
편

부
록

뷰'를 해외 BQE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블루투스 인증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적지않은 시간과 비용을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국내에서 블루투스 시험부터 인증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돼 시간과 비용을 절반 이상 단축했다는 게 기업의 평가입니다. BQE로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Q BQE로서 자긍심도 남다른 것 같은데요?

정확한 리뷰로 블루투스 제품 출시 이후 상호 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블루투스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리뷰가 정확하지 않으면 시장에 출시된 이후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BQE 선임 이전부터 해외 BQE와 일을 해본 경험이 실제 업무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리뷰한 제품이 상호 운용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Q 블루투스 활성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블루투스 활성화가 미흡한 것은 상호운용성의 제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된 칩과 스택 기술이 제공돼 조만간 달라질 것입니다. 또 그동안 컬러 애플리케이션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헤드셋을 중심으로 프린터, 핸드프리 등 컬러 애플리케이션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저변이 점점 커지는 추세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헤드셋 시장이 발전할 것이라 보며, 프린터 등 컬러 애플리케이션이 블루투스 시장 활성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Q 블루투스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나요?

오는 2010년을 전후로 블루투스 제품이 많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블루투스 칩이 고가라 블루투스 제품이 비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블루투스를 활용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영역 확대가 예상돼 블루투스 기기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과 저변 확대가 맞물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 비관적인 전망이 아닙니다. 칩 사이즈도 갈수록 작아지고 있어 적용가능한 기기가 늘어날 것입니다. 저전력 구현도 블루투스 적용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는 대목입니다. 오는 2010년에는 무선랜과 결합을 통해, 이후에는 UWB와 결합하는 등 속도 문제 또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Q 2008년 TTA 블루투스 국제공인시험소(BQTF)가 블루투스 영상 전송 프로파일(VDP) 시험기를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지요?

영상 전송 프로파일이란 블루투스 제품 간 영상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블루투스 규격입니다. 휴대폰을 중심으로 멀티미디어 영상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품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블루투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VDP 시험기는 블루투스 기술 다국적 연합단체 '블루투스 SIG'와 협력해 개발됐으며, 블루투스 SIG에서 주최하는 상호운용성 시험 행사 'UPF(UnPlugFest)'에서 인증시험 항목에 대한 검증을 마쳤습니다. VDP 시험기 개발로 국내 블루투스 관련 기업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VDP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제품 간의 상호운용성 향상에 일조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Q 미국 시장의 블루투스 인증체계에 변화가 있다고 하던데요?

2009년 2월 6일부터 미국 시장에 출시되는 블루투스 제품은 '미국 CTIA BT' 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자국에서 인증을 받았더라도 '미국 CTIA BT' 인증을 반드시 획득해야 합니다. '미국 CTIA BT' 인증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검증하기 위해 우선 3개 시험소가 출범합니다. 3개 시험소는 모두 미국에 위치합니다. TTA는 향후 시험소 지정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TTA가 무난하게 시험소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